

또 한번 '압도하라' 그리고 '포효하라'

KIA, 홈 NC·원정 키움戰 출격

KS 우승 가능성, 60승 선착 '-3' 상대전적 12승 2패 압도 자신감 정해영·최지민 복귀 눈앞 '남보'



올 시즌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60승 고지 선점과 함께 2위와 격차 벌리기에 나선다.

22일 현재 57승 35패 2무를 기록하고 있는 KIA는 2위 LG에 6.5게임 앞선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다.

KIA는 3승만 보태면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시즌 60승에 등정한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 다가선다.

60승 선착은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7부 능선을 넘는 일과 같다.

전·후기 리그로 나뉘어 열린 1985-1988년, 양대 리그로 치러진 1999-200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60승 선점 팀의 정규리그 1위 확률은 76.4% (34번 중 26번),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은 61.7% (34번 중 21번)에 달했다.

KIA가 마지막으로 시즌 60승에 선착한 것은 2017년으로 그해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패권을 가져갔다.

이번주 중·하위권 팀들과 경기를 갖게 돼 대진운도 좋은 편이다.

먼저 5위 NC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KIA 최지민이 지난 2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팀이 5-7로 뒤진 9회초 역전 스리런을 터뜨린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최하위 키움과 고척 주말 3연전을 갖는다.

두 팀을 제물로 2위와의 승차를 더 벌려 탄탄 대로를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KIA는 올 시즌 NC와의 상대전적에서 8승 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친적관계를 형성했다. 4월 광주에서 2승 1패를 거둔 후 5월에 2연속 창원 스윙시리즈를 수확하며, NC전 6연승을 달리고 있다.

NC는 주장 손아섭이 왼쪽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키움도 부상으로 신음을 앓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시즌 내내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최근 10경기 3승 7패를 기록하며 꼴찌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상대전적은 4승 1패로 KIA가 앞서 있다. 다만 직전 경기인 지난달 28일 홈에서 6-1 7이라는 믿기 어려운 점수차로 대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 빛을 고쳐서 값을 차려다.

KIA는 후반기가 들어 11경기 9승 2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우승을 향한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1위 자리를 넘보던 삼성과 LG를 상대로 3주 연속 전승을 거두며, 2위와의 승차를 늘

려나갔다.

주전 투수들의 부상 이탈로 마운드에 공백이 크지만, 대체선발 황동하와 김도현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에 마무리 정해영과 최지민의 복귀 소식도 슬슬 전해지고 있어 마운드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무엇보다 식을 줄 모르는 리그 최강의 방망이 화력은 가히 압권이다.

지난주 삼성과 한화와의 경기를 타선의 힘으로 싸움이 하면서 KIA가 왜 올해 우승후보인지 여실히 증명했다. 삼성전 승부에 배기를 박은 나성범의 만루홈런, 한화전 스윙시리즈를 합작한 테스형의 9회 투런포 (1차전)와 최형우의 9회 극적인 역전 스리런 홈런 (3차전)은 한편의 각본없는 드라마였다.

불붙은 방망이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번 6연전도 KIA가 압도할 것임을 팬들은 의심치 않는다.

이제 독주체제를 고착화 할 차례다. 올 시즌 그는 때보다 V12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중철기자

광주체육발전 '아름다운 동행'

광주시체육회·송원대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체육회는 22일 송원대와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원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최수태 송원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체육회와 송원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과 연구개발 지원 협력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과 송원대 스포츠데이터분석학과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체육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세파타 크로 등 5개 팀을 육성하며 광주체육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대포 명문사학 송원대와 협약



전갑수 체육회장(오른쪽)과 최수태 총장이 업무협약서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을 맺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고 우수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광주체육 발전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유해란이 22일 열린 LPGA 투어 데이나 오픈 최종 라운드 16번 홀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 16번 홀 보기'

유해란, LPGA 데이나 오픈 1타차 준우승

유해란이 미국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2승을 아깝게 놓쳤다.

유해란은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 투어 데이나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6타)를 쳐 켈리 웨이(태국)에 1타 뒤진 2위(19언더파 28타)에 올랐다.

한때 5타차 열세를 따라잡고 15번 홀에서 공동선두로 올라선 유해란은 시즌 첫 우승이자 지난해 10월 월마트 NW 야간 소 챔피언십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바라보던 유해란은 16번 홀(파4) 보기가 뼈아팠다.

17번(파5), 18번 홀(파5) 모두 버디

를 잡아냈지만, 완나센도 버디로 우승해 경기를 다시 뒤집지 못했다.

버디 7개를 잡아낸 유해란이 딱 1개 적어낸 보기가 우승 길목을 가로막은 셈이다.

지금까지 12번이나 한국인 챔피언을 배출해 '한국 선수 텃밭'으로 불렸던 데이나 오픈에서 올해 출전 선수가운데 세계랭킹은 린시위(중국)에 이어 두 번째, 상금랭킹은 가장 높은 유해란이었기에 아쉬움은 더 컸다.

역전 우승은 무산됐지만 유해란은 이번 시즌 최고 순위를 남겼다.

올해 여섯번 톱10에 진입한 유해란은 JM 이글 LA 챔피언십 3위가 시즌 최고 성적이었다. /연합뉴스

'베카 결승골'...달구벌 무승 징크스 깼다

광주FC, 대구 원정 1대0...상위스플릿 가시권



광주FC가 베카의 결승골을 앞세워 올시즌 달구벌 무승 징크스를 깼다.

광주는 지난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4R 원정경기에서 대구FC에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1점(10승1무13패)을 확보한 광주는 7위로 올라섬에 상위스플릿 마지막인 6위 FC서울(승점 33점·9승6무9패)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경기 초반부터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기회를 노리던 양팀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상기와 안영규가 경고로 받았다.

경기의 포문을 광주가 열었다. 22분 왼쪽 측면에서 정호연의 패스를 이어 받은 안혁주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위협적인 중거리 슈트를 날렸다. 광주는 가브리엘을 풀백처럼 내려 앉혀 사실상 5백을 형성하며 세징야 봉쇄에 주력했다.

광주의 날카로운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됐다. 전반 33분 패널티박스 바로 바깥에

서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 찬스에서 키커로 나선 베카가 낮게 깔아 찬 슈트 상대 수비벽을 피해 왼쪽 포스트 하단 부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골로 연결됐다.

이후 대구가 반격에 나섰다. 광주 선수들은 몸을 내던지는 투혼을 발휘하며 공격을 차단했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안혁주를 빼고 '새로운 7번' 아사니를 전격 투입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곧바로 아사니는 로빙 패스로 베카에게 골키퍼와 맞서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하지만 골키퍼가 각을 좁히며 나오며 막아냈다.

아사니는 후반 5분 박스 안에 자리 잡은 가브리엘에게 정교한 횡패스로 위협적 장면을 연출했다.

후반 9분에는 측면에서 공을 잡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다.

대구와 패상 공세가 이어지자 최전방 베카까지 수비에 가담하며 골문을 단단히 지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구의 반격이 거세졌다.

위협적인 순간도 나왔다. 후반 43분 세징야가 날린 대각선 땅볼 슈트가 이



광주FC 베카가 지난 21일 열린 대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로가 발을 짚어 갔다. 하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다.

후반 추가시간 이탈리아의 슈트 골

퍼 김경민의 선방으로 막아냈다.

광주는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며 귀중한 원정 승리를 지켜냈다. /박희중기자

광주체고 나현주 '금1은1'

회장배 전국중·고육상...110m 허들 박태연 '銀'

광주체고 나현주(3년)가 회장배 제22회 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현주는 지난 19-22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고부 400m에서 47초93 기록으로 양승우(충남체고·48초64)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해 남고부 400m 랭킹 1위로 올라선 나현주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나현주는 남고부 200m에도 출전해 21초73의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고부 110m허들에 출전한 광주체고 박태연(1년)은 14초99의 기록으로



나현주(가운데)가 시상식 후 시상 선수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이민혁(모바일과학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태연의 이번 14초99 기록은 개인 최고 기록이다. /박희중기자